

“편안한 일상의 고마움, 느리게 살 때 행복감”

신작 앨범 '플로' 발표 싱어송라이터 이상은

'담다디' 무계 벗고 유랑 문화 고수들에 영감 얻어 음악엔 치유의 힘 있어야



'침'의 시작은 '억지로'였다. 외동딸인 그는 충남 공주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아 지자 분가로 내려갔다. 집안일을 거름다 보니 나라가 국정 농단 사태로 시골벽적했다. 그런 상황에서 음반을 낼 수 없었다. 시골의 평온함에 '은퇴할까'란 유희도 살짝 들었다. 음악과 거리가 멀어 친숙해질 즈음, 고요를 깨는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오랜 팬의 편지를 읽고서다. '언니는 유유자적하며 산다'란 글귀가 뇌리에 남았다. 좋은 뉴스였지만 '뭔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란 자각을 했다. 5년이 걸려 새 앨범 '플로(fLOW)'를 발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상은(49) 얘기다. "휴게(Hygge·아늑함, 편안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라이프를 오래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하하. 신곡 듣고 싶은 팬들에게 옛날 노래만 부르는 아티스트로 보이는 것도 부끄럽고요."

첫 트랙 '릴렉스(Relax)'가 힐링의 문을 연다.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내려놔 놓아'. 피아노 선율에 내려앉은 담백한 창법이 최면을 거는 주문 같다. 한 곡 한 곡 단비처럼 뿌리는 '토닥임'에 푸석한 마음이 촉촉해진다.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일상 노마드), 희미해진 어른의 동심('가을 수채화'), 관계에서 다진 마음('플로')을 매만지는 손길에 능숙하다. 그는 음악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도 경험한 치유의 힘이다. 고3 시절 야간 자율학습 시간 강당에 몰래 들어가 노래하며, 운동장 한가운데 누워 AFKN으로 팝을 들으며 송풍기 트이는 해변감을 느낀 기억이 있다. 위로를 떠안는 사운드는 '손맛' 있는 편곡자들 덕에 '감칠맛'이 살았다. 전작인 15집 '무루'(2014)에선 '나 홀로' 편곡에 스포디코를 했다면, 이번엔 이규호, 강이재, 언니네이발관의 이능룡, 박성도가 편곡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전자 사운

드나 바이올린, 만들어진 연주를 넣는 '재주'로 색채를 늘렸다. 그는 "모두 예상의 편곡이었다"며 "데모곡의 '키 프레이즈'(key phrase·핵심 멜로디 라인)를 살리고 각자 색깔을 더해 상상하지 못한 사운드를 만들었다. 어린 시절엔 내 음악을 장악하려 한 때도 있었는데, 상대에게 열어주니 아이디어가 섞여 훨씬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근래 평범한 삶에 발을 붙였지만, '살은 여행'이란 그의 노래처럼 이상은은 '노마드 아티스트'였다. 1988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담다디'로 대상을 받은 지 30여년. 전주환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6공화국이 출범하고, 88서울올림픽이 열려 사회가 약화하던 그해, 그는 단연 '핵심씨'(무리에서 아주 잘 지내는 사람이란 뜻)였다. '선머슴' 같은 외모에 경충한 키로 탭버린 춤을 추던 모습은 '문화 충격'이었다. "록밴드 컴퍼니의 보이 조지를 좋아해 그 춤을 따라 춘 것이었죠. 하하."

그러나 이상은은 쏟아진 시선을 감당하지 못해 1991년 미국 뉴욕으로 훌쩍 떠났다. '담다디' 시절엔 '방전된 에너지, 예민함을 자극하는 고통, 신경이 타들어 가는 고역의 추억'이다. 시골벽적한 삶에서 탈출한 그는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미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정작 뉴욕에서 음악의 신세계를 경험했다. 라디오를 틀면 나오는 트레이시 채프먼, 밥 말리, 수잔 베키 등 '다른 레벨' 음악에 "기절초풍할 것" 같았다. 점점 이젤에서 멀어졌다. 이곳에서 낸 3집(1991)부터 그는 싱어송라이터로 '내안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시 뉴욕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20대의 6년은 "음악 그 자체에 포커싱이 맞춰진" 시기다. 재일 교포 작가 강신자 씨와의 만남이 계기였다. "제 3집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강신자 언니 말에 일본 구마모토현에 놀러 갔어요. 그분 덕에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이후 '크로스비트아시아'란 민간 문화 교류 운동도 펼쳤죠. 그곳에서 공연하고 앨범도 내며 언니 덕에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면서 온전히 음악에 매몰될 수 있었어요." 돌아보니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그는 30년 반향점을 둔 지금은 이렇게 비유했다. "쉽없이 상상하던 토양도 휴작기가 있어 영양소 풍부한 농작물을 길러낸다는 것. "19살에 데뷔해 '워라벨'(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도 모르고 활동에 에너지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음악을 일로 보는 시기도 있었죠. 안식년을 보내다 다시 의욕이 생겨요. 가족을 방치하다시피 살다가 부모님과 시간 보내며 '인생에서 중요한, 소중한 행복'도 깨달았어요. 더 좋은 생산을 하려면, 낙수처럼 떨어지는 작은 영감을 시원하게 마시려면 강박과 압박감 없이 느리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세종·우도환 "대본 접하니 가슴 뛰어"

여말선초 격변기 다룬 사극 '나의 나라' JTBC 내일 첫 방송



배우 양세종(왼쪽)과 우도환

1992년생 동갑내기엔 2년 전 '슈퍼유키'로 단박에 스타로 떠오른 젊은 두 남자 배우, 양세종(27)과 우도환이 만난다. JTBC 새 금토극 '나의 나라'에서다. 양세종과 우도환은 2일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에서 열린 JTBC 새 금토극 '나의 나라' 제작발표회에서 "대본을 접하고 가슴을 뛰어 작품을 선택했다"고 입을 모았다. 격변의 시대, 여말선초를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에서 양세종은 신념 앞에서라면 죽음을 불사하는 무사 서휘 역을, 우도환은 계급을 뛰어넘어 새 세상을 꿈꾸는 서일 남선호 역을 맡았다. 여기에 김설현(24)이 연기하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여장부 한희재까지, 각각의 신념을 가진 주인공들이 난세를 헤쳐가며 자신만의 나라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사극에서 둘째까라면 서러운 베테랑 연기자 김영철과 장혁은 각각 이성계와 이방원으로 분한다. "작품을 위해 길게 기른 머리를 묶고 나타난 양세종은 '각각의 인물들이 서사가 있고 각자가 가진 신념이 뚜렷하다. 1회부터 드라마가 끝나기까지 그런 신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혹은 인물들이 신념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런 과정들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라마 시작하기 전부터 우도환과



2~3개월 액션스쿨에 나가 연습했다"며 화려한 액션 연기도 예고했다. 우도환은 출연 계기에 대해 대본 외 요소로 양세종을 뽑았다. 그는 "세종이와 저, 두 배우가 언제 같이 작품을 할 수 있겠나 싶었다. 우리가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내면 재밌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김설현은 "한희재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다"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싫어하는 모습이 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연출을 맡은 김진원 PD는 양세종과 우도환, 두 배우의 연기 스타일을 야구의 직구와 변화구로 설명했다. 김 PD는 "양세종이 정교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연기를 한다면 우도환은 신속하게 직구를 던지는 타입이다. 두 배우가 같이 호흡하면서 서로 뭔가를 나누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나의 나라'는 4일 밤 10시 50분 JTBC에서 첫 회 방송을 시작하며 넷플릭스로도 볼 수 있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Content. Includes shows like '00 KBS 뉴스광장', '50 인강극장', '25 아침마다', etc.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Content. Includes shows like '07:00 코코몽3', '07:15 미스터리', '12:10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etc.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3일(음 9월 5일 癸酉)'. Include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Also includes a date and phone number: 010-9790-8237.